

일본 경제 동향_2016년 5월

(1억 총활약 플랜)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2
2. 무역수지 흑자폭 2개월 연속 확대	6
3. 엔고가속·저주가·마이너스 금리	9
4. 해외직접투자 2개월 연속 증가	10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1억 총활약 플랜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5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만에 감소	15
2.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17
V. 참고 자료	19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19
2. 주요 경제 일정	21

1.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0.7	111.2	-	
GDP증가율(연율,%)	△0.0	0.6	5.4	△1.7	1.6	△1.7	1.7	-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9.5	70.1	20.8	16.3	17.9	17.2	19.9(p)	-	-	-
	공공투자	24.5	23.4	6.3	4.1	5.0	6.1	6.6(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9.0	70.0	15.5	14.8	17.6	21.8	19.6	6.2	7.5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2.6	0.5	△0.3	0.2	0.0	0.1	△0.3	△0.1	0.1	-
	전년동기비	2.6	0.5	2.1	0.1	△0.1	0.0	△0.1	0.0	-0.3	-
실업률(%)		3.6	-3.4	3.5	3.3	3.4	3.2	3.2	3.3	3.2	-
수출(조엔)	73.1	75.6	18.9	18.8	19.0	18.8	17.5	5.7	6.5	5.9	
수입(조엔)	85.9	78.5	20.4	19.1	20.0	19.0	17.2	5.5	5.7	5.1	
무역수지(조엔)	△12.8	△2.9	△1.4	△0.3	△1.0	△0.2	△0.3	0.2	0.8	0.8	
경상수지(조엔)	3.9	16.4	4.2	3.8	5.0	3.6	5.9	2.4	3.0	-	
환율	달러	105.8	121.1	119.1	121.4	122.3	121.5	115.3	115.0	113.1	109.9
	원화(100엔)	996	935	923	905	957	953	1,043	1,060	1,052	1,044
금리(10년물,%)	0.55	0.36	0.34	0.40	0.40	0.31	0.051	0.015	-0.062	-0.092	
주가(닛케이)	15,460	19,203	18,226	20,058	19,474	19,035	16,843	16,347	16,897	16,544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경기판단)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16.3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1.2로 전월비 0.5p 상승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16.3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8,235억 엔 흑자

○ '16.4월 수출은 5조 8,892억 엔, 수입은 5조 657억 엔

(환율) 엔고 가속

○ '16.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9.9 엔으로 전월비 2.8% 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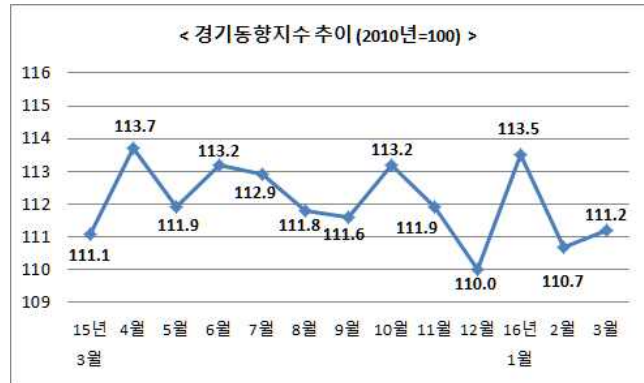
* '16.4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44엔으로 전월비 0.8%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경기기조 판단)

- 부분적인 약세를 동반하면서 완만한 회복기조
 - 개인소비와 수출, 생산은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설비투자는 약간의 회복 움직임
 - 기업수익은 신중한 업계현황 판단 하에서 완만하나마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도 개선



자료 : 내각부

- 3월 경기동향지수는 111.2로 2개월 만에 전월보다 0.5p 개선

□ (전 망)

- 향후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완만한 회복이 예상
 - 다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보유국들의 경기부진이 경기하강압력으로 작용할 위험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구마모토 지진의 악영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
 - 수개월 후 경기상태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98.4로 전월보다 0.5p 악화
- 일본경제는 경제순환의 기점인 소득환경면에서 볼 때, 기업수익의 호조에 따른 이제까지의 개선경향이 변조를 보이기 시작
 - 2016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엔고가 기업수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가계 소득도 증가하기 어려워진 만큼, 소비부진이 보다 장기화될 리스크도 있음

<GDP>

- 일본 내각부가 5월 18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GDP 성장률(속보치, 실질)은 전기비 0.4%, 연율 1.7%
 - 개인소비와 수출이 증가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 설비투자는 3분기 만에 감소하는 등 경기는 여전히 힘을 잃고 있음
 - 2016년은 예년보다 생산 일수가 1일 많은 윤년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제외하면 0%대의 성장률을 보인 셈
- GDP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0.2%. 이중 개인소비가 0.5% 증가, 2분기 만에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1.4% 감소,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반전
 - 신흥국 경제의 부진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한 것 외에, 금융시장의 혼란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자세가 신중해진 점이 설비투자 감소의 주된 원인
 - 수출은 전기비 0.6% 증가함에 따라 외수의 GDP기여도도 0.2%. 특히 방일외국인들의 소비가 호조를 보여 GDP를 전기비 0.1% 증대시킨 효과가 있었음
- 2분기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음
- 더욱이 일본경제는 경제순환의 기점인 소득환경면에서 볼 때, 이제까지의 기업수익의 호조에 따른 개선경향이 변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지적
 - 2016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엔고가 기업수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도 증가하기 어려워진 만큼, 소비의 정체가 보다 장기화될 리스크도 있음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전기비			△0.7	0.5	1.3	△0.4	0.4	△0.4	0.4
전기비연율	△0.0	0.6	△2.7	2.1	5.4	△1.7	1.6	△1.7	1.7
전년동기비			△1.5	△1.0	△1.0	0.7	1.8	0.7	△0.0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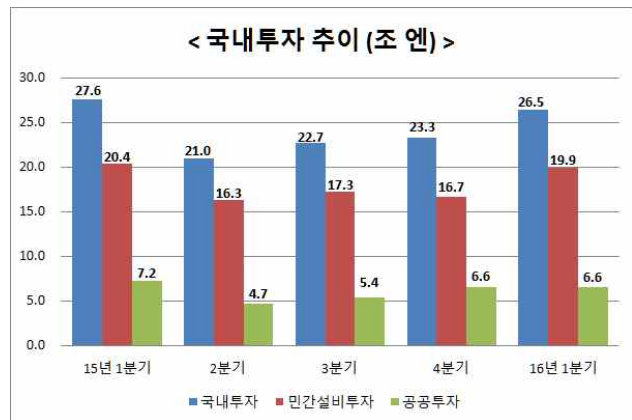
□ '16.1분기 국내투자 GDP의 21.2%

○ '16.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3.3% 증가한 26.5조엔

□ (민간설비투자)

○ '16.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8.9% 증가한 19.9조 엔, 국내 투자의 75.0%를 차지

- 그러나 실질기준으로는 2분기 만에 전기비 1.4% 감소, 금년 초 이후 엔고와 더불어 기업들의 경기 불투명감 등이 투자에 악재로 작용



자료 : 내각부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6년 3월)에 의하면, 2016년도는 전 산업에서 설비 투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과잉감은 개선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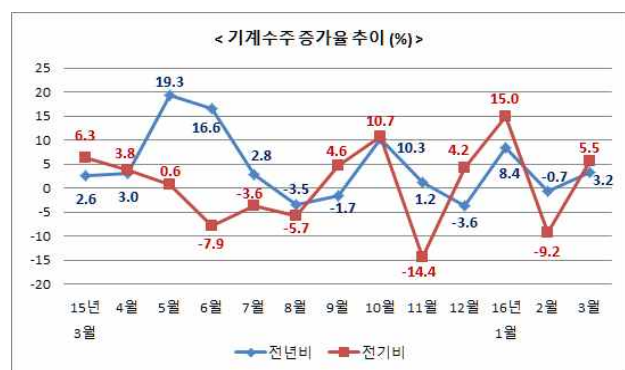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3월 기계수주 증가율도 전월비 5.5%로 상승 반전

□ (공공투자)

○ '16.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0.9% 감소한 6.6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4.9%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는 완만한 감소경향

- 3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6.8% 감소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그러나 2015년 12월에 결정된 3.3조엔 규모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구마모토 지진대책은 공공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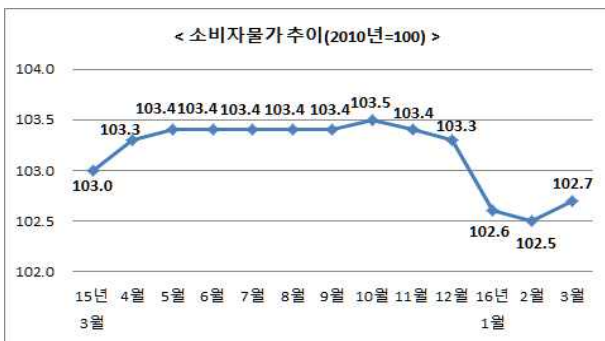
□ '16.3월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16.3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2.7(2010년= 100)로 전월비 0.1%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0.3%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비 1.1% 상승
- 향후 물가하락에 대한 유가하락의 영향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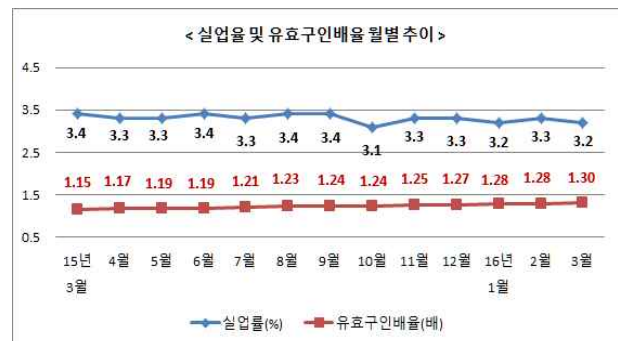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3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개선된 3.2%
 - 15~24세의 청년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하락한 5.8%
 -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
- 16.3월 유효구인배율은 신규 구인 수의 증가와 함께 1.30배로 상승, 여전히 고용수요의 증가를 반영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흑자폭 2개월 연속 확대

□ (총 합)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 '16.4월 무역수지는 8,235억 엔 흑자로 전월대비 흑자폭이 2개월 연속 확대
 - 수입의 감소가 흑자폭 확대에 기여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511억 엔에서 2,946억 엔으로 축소, 對 미국 무역흑자도 전월의 6,858억 엔에서 6,148억 엔으로 축소

< 2016년 4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5	-6.8	14.0	5.9	-10.1	-8.8	24.0	-6.2
수 입	5.7	-14.9	3.6	5.1	-23.3	-11.2	22.3	-17.4
수 지	0.8	237.9	300.0	0.8	-	9.2	1.1	-

자료 : 재무성

□ (수 출) '16.4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4월 수출은 엔고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8.8% 감소한 5조 8,892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8.0% 감소
- 전월과 비교하여 5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등 전자부품간 순위가 바뀐 가운데,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감소
 -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16.8%로 가장 큼

<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267	1.3	9.2	9,132	-6.7	-11.1	28,355	0.3
2	자동차부품	2,990	-3.3	13.1	3,062	-3.2	2.4	7,945	-7.0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087	-6.7	15.1	2,943	-10.8	-4.7	8,602	-9.1
4	철강	2,635	-28.6	9.3	2,192	-32.0	-16.8	7,356	-28.1
5	원동기	2,306	-10.5	11.8	2,043	-14.3	-11.4	6,108	-9.3

자료 : 재무성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감소

- EU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11.1%로 가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6.2% 감소

<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3,072	-5.1	7.3	12,005	-11.8	-8.2	48,548	-5.7
2	중국	11,161	-7.1	19.5	1,0352	-7.6	-7.2	39,452	-7.2
3	ASEAN	9,299	-13.4	10.4	8,823	-11.5	-5.1	34,279	-14.7
4	EU	7,903	12.1	16.5	7,025	9.9	-11.1	28,038	6.9
5	한국	4,392	-13.5	8.8	4,120	-14.2	-6.2	16,393	-13.5
6	대만	3,625	-8.8	18.9	3,313	-9.9	-8.6	13,330	-8.3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6.4월 수입도 금액, 물량 모두 감소

○ '16.4월 수입은 5조 657억 엔으로 전월비 11.2%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11.5% 감소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데다,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감산 영향으로 원자재수입이 감소한 것이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

○ 의류동부속품이 액화천연가스를 제치고 수입순위 2위로 올라선 것이 특징인 가운데,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감소폭이 -33%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모두 수입이 감소

- ASEAN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 -15.3%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전월비 11.6%의 큰 폭 감소

<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4,679	-36.1	23.1	3,531	-51.8	-24.5	16,728	-41.7
2	의류동부속품	2,657	14.4	0.9	2,362	-15.4	-11.1	10,310	-7.3
3	액화천연가스	3,460	-43.7	-2.5	2,320	-44.5	-33.0	12,828	-47.3
4	의약품	2,014	-10.9	-28.2	2,209	-8.8	9.7	9,507	12.2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204	-17.6	8.8	1,949	-20.5	-11.6	8,565	-16.2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4,671	6.3	11.5	13,299	-16.8	-9.4	58,049	-9.6
2	ASEAN	9,008	-16.9	0.7	7,654	-20.9	-15.3	34,626	-17.3
3	EU	6,835	-3.7	-4.0	6,175	-8.4	-9.7	27,328	1.4
4	미국	6,214	-20.0	1.2	5,857	-18.1	-5.7	24,062	-11.7
5	호주	2,749	-25.8	-1.0	2,524	-32.8	-8.2	10,979	-30.4
8	한국	2,280	-17.7	1.8	2,015	-30.2	-11.6	8,835	-21.4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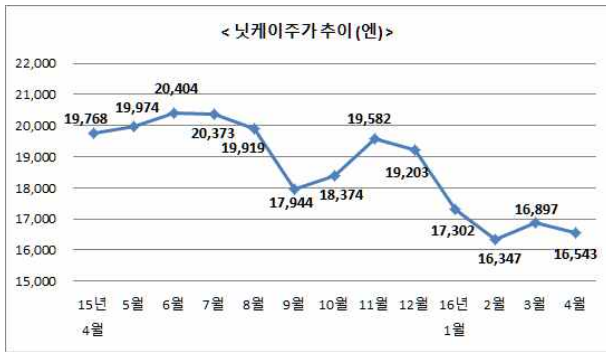
3. 엔고가속 · 저주가 · 마이너스 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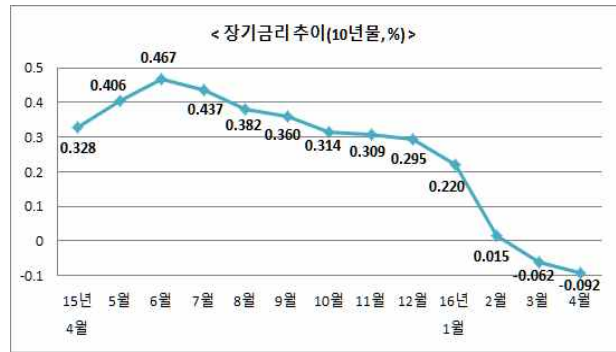
- '16.4월 평균 주가는 엔고를 배경으로 전월비 2.1% 하락한 16,547엔

□ (금 리)

- '16.4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영향이 사채·국채 시장에 본격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전월의 -0.062%에서 -0.092%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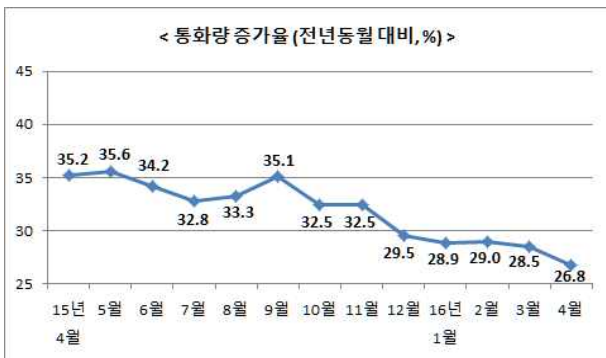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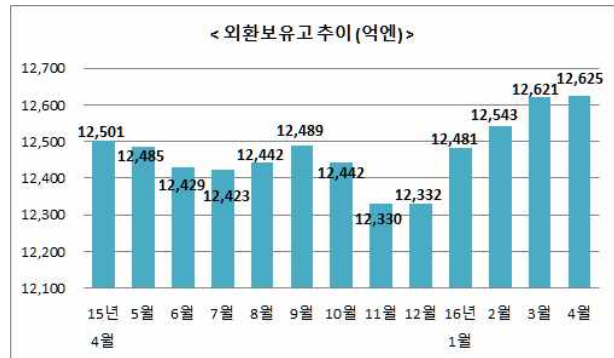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6.4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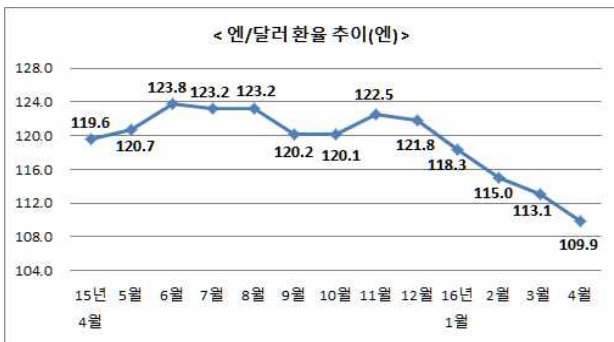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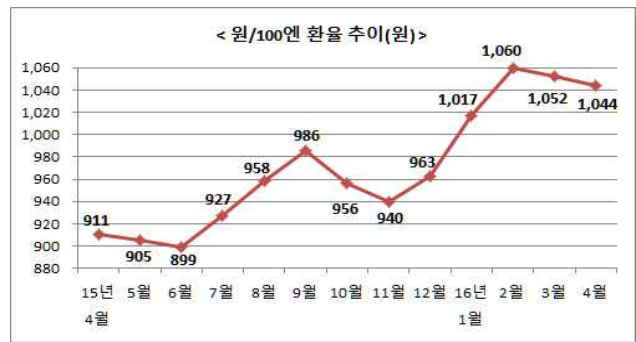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6.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8% 하락한 109.9엔(엔고)
 - ‘16.5월 들어서도 중순경까지는 107-108엔 대에서 엔고세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109-110엔대로 상승, 5월 24일 현재 109.3엔
- 최근 미국 내 조기금리인상론 후퇴, 국제 유가하락을 배경으로 엔화매입·달러화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국제적으로 자국통화약세화 경쟁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엔 매도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엔고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엔저세로 반전될 전망
- ‘16.4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44원으로 전월의 1,052원에 비하여 0.8%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2개월 연속 증가

- (동 향) 최대 투자지역인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호조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
- ‘16년 3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75,273억 엔으로 전월비 22.1%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5	2015			201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	3월	1-3월	
금 액	696,396	147,919	176,072	217,554	196,248	59,326	61,649	75,273	196,248	
증가율	전기비	-11.8	-4.5	19.0	23.6	-9.8	-22.8	3.9	22.1	-
	전년동기비	-11.8	-30.8	2.8	9.7	26.7	11.9	31.7	36.8	26.7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 對 미국 직접투자는 3조 4,650억 엔으로 37.1% 증가
- 對 중국 직접투자는 1,192억 엔으로 22.8% 증가
- **對 한국 직접투자는 267억 엔으로 36.9% 증가**
- 對 유럽 직접투자는 2조 8,469억 엔으로 2.4%의 소폭 증가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4분기		2월		3월		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세계	696,396	-11.8	217,555	23.6	61,649	3.9	75,273	22.1	196,248	-9.8
아시아	141,593	19.0	32,004	-25.0	6,803	-17.2	7,828	15.1	22,851	-28.6
중 국	14,659	1.1	3,823	2.4	971	-4.4	1,192	22.8	3,179	-16.8
한 국	4,714	-20.6	1,193	2.0	195	-24.7	267	36.9	721	-39.6
북 미	237,283	-2.9	88,902	50.7	25,355	16.6	34,650	36.7	81,748	-8.0
미 국	230,435	-2.9	87,905	51.7	25,030	16.7	34,327	37.1	80,800	-7.8
중남미	22,758	49.4	6,214	30.1	613	-25.9	2,134	248.1	3,574	-42.5
유 럽	269,749	-30.4	85,022	32.1	27,811	3.6	28,469	2.4	83,122	-2.2
대양주	19,126	1.2	2,737	-11.6	420	-61.2	1,401	233.6	2,904	-8.9
중동	1,805	46.9	405	7.7	345	148.2	331	-4.1	815	101.2
아프리카	6,843	7.3	1,817	2.7	303	-34.7	458	51.2	1,225	-32.6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연간으로 전년의 2배인 11조엔에 달하여 과거 최고를 기록
- 인구감소와 국내시장의 축소 하에서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억 총활약 플랜

- 일본정부가 5월 18일 여성과 고령자들이 일하기 쉬운 사회를 목표로 「1억 총 활약 플랜」을 발표
 - 1억 총활약 플랜은 신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동일 노동·동일 임금제 도입과 보육사의 임금인상 등 근로방식을 개혁함으로써 가속화하는 인구감소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임
 -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개선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2019년부터 운용하고,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노동자과건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2018년까지 마칠 계획임

□ (주요 내용)

- 동일노동/동일임금에 정사원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유럽수준으로 축소
 - 풀타임노동자(정규)에 대한 파트타임(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75% 수준으로(프랑스 89%, 독일 79%보다 낮음), 일본 정부는 이를 80% 정도로 인상 목표
- 시간외 노동시간에 대하여 유럽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수준을 목표
- 최저임금을 연간 3% 인상, 전국 평균시급 1,000엔을 목표
- 계속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 고령자고용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
- 보육사 급여를 2017년부터 월 6,000엔, 경험자는 월 4만엔 인상
- 학동보육(방과 후 아동클럽)의 수용규모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30만 명을 늘림
- 간병지원 급여를 2017년부터 월평균 1만엔 정도 인상
- 급여형 장학금은 재원이나 공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검토
- 명목 GDP 600조엔을 2021년까지 달성
- 희망출생률 1.8, 간병이직 제로를 2025년까지 달성

□ (평가)

- 기업의 근로방식 개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임
 - 노동규제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손질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가 요구
-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 일본의 파트타임임금은 정사원을 중심으로 한 풀타임노동자의 60%에 그쳐, 80-90%의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처우 향상은 의의가 있음
 - 다만, 전제로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산성향상 분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가 아니면, 기업에 의한 처우개선은 오래 계속될 수 없음
 - 비정규노동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직업훈련을 충실히 하는데도 정부는 주력해야 함
- 장시간 노동 시정 관련
 - 장시간노동의 시정책은 충분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음
 - 노동기준감독기관의 출입조사시의 잔업시간을 한 달에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독일이 1,300시간, 프랑스가 1,400시간에 비하여 일본의 정사원은 2,000시간으로 매우 높음
 - 장시간노동의 악영향은 심각함
 -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여성의 60%가 이직하는 현실이고, 관리직으로의 승진을 주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음
 - 남성이 양육이나 가족의 간병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데도 장시간의 잔업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간외노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필요함
 - 일정한 규제강화는 필요함. 현재는 노사협정을 체결하면 시간외나 휴일노동이 인정되나, 정부가 이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함
 - 특별조항이 있는 협정이라면 월 45시간을 초과한 시간외노동이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되는 동시에, 신축적인 근로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규제개혁도 장시간노동을 줄이는데 필요함

○ 시급 등 관련

-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탈시간급」 제도를 신설하는 노동기준법개정안을 조기에 성립시켜야만 함
- 기업과 사원에게 다양한 근로방식의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완화와 강화를 적절히 잘 조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함

○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 고령자들의 취로지원으로서 65세 이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성금을 확충하는 것임
- 그러나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용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올 우려도 있음
- 정년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시스템만이 아니고 정년 전을 포함하여 별도의 기업이나 직종으로 옮겨 일을 계속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이에 좋은 인력들이 수요가 있는 분야에 옮겨가기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직지원 등 인재서비스를 활발하게 하는 직업소개 대한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함

○ 보육, 간병 관련

- 정부는 보육의 수용규모를 2017년까지 50만명 분을 정비, 보육사와 간병사에 대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키로 결정하였으나,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처우개선에는 민간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간병의 경우에는 보험 외 시장을 개발, 사업자의 창의개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음
- 보육도 주식회사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보육사의 임금을 높여갈 수 있음

○ 이번 플랜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임금상승과 고용이 실현되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비정규직이나 연령 등의 차이를 물을 필요는 없음

- 이 점을 정책의 중심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1억 총활약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만에 감소

□ (총 합)

- '16.4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113백만 달러 감소한 2,037백만 달러
 - 대일수입 감소가 대일무역적자 감소에 기여
- 4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8%에서 4.4%로 저하됨과 동시에, 대일 수입의존도도 전월의 12.7%에서 11.8%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8.2%에서 7.6%로 저하

< 2016년 4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051	-3.6	20.6	1,775	-25.4	-13.5	7,319	-16.4
대일 수입	4,200	-4.2	23.3	3,812	-10.9	-9.2	14,509	-11.1
무역 수지	-2,150	-106	400	-2,037	141	-113	-7,190	-376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4월 대일 수출은 1,775백만 달러로 13.5%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출 감소율 4.6%, 일본의 수입감소율 11.2%를 상회하는 감소폭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3월	-3.6	20.6	-8.1	19.2	-14.9	3.6
2016.4월	-25.4	-13.5	-11.2	-4.6	-23.3	-11.2
2016.1-4월	-16.4	-	-12.8	-	22.3	-

○ 전월과 비교하여, 중전기기가 10대 품목에서 빠지고 금속광물이 포함된 된 것이 특징인 가운데, 광물성연료와 석유화학제품, 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출이 감소

- 대일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수출증가폭이 31.7%로 가장 큼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수출 감소폭이 -25.2%로 가장 큼

< 2016년 4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051	-3.6	20.6	1,775	-25.4	-13.5	7,319	-16.4
1	철강제품	260	-1.7	12.6	217	-12.9	-16.5	931	-8.4
2	전자부품	169	-21.8	26.1	142	-24.1	-16.0	591	-23.9
3	광물성연료	112	-43.8	-9.7	129	-59.2	15.2	555	-52.8
4	수송기계	117	10.4	28.6	108	9.6	-7.7	452	11.9
5	석유화학제품	88	-12.9	-1.1	106	-17.1	20.5	361	-18.7
6	정밀화학제품	121	-1.5	21.0	101	-16.6	-16.5	420	-7.6
7	기계요소공구·금형	100	19.0	14.9	84	1.0	-16.0	354	12.6
8	금속광물	63	-22.6	-22.2	83	-16.2	31.7	304	-9.9
9	산업용전자제품	111	-44.0	20.7	83	-74.7	-25.2	384	-59.8
10	농산물	84	3.2	16.7	74	-20.5	-11.9	289	-1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6.4월 대일수입은 3,812백만 달러로 전월비 9.2%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의 감소율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3월	-4.2	23.3	-13.9	14.2
2016.4월	-10.9	-9.2	-14.9	-2.8
2016.1-4월	-11.1	-	-15.9	-

○ 전월과 비교하여 산업용 전자제품과 기초산업기계간 수입순위가 바뀐 가운데,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

- 정밀기계의 대일수입감소폭이 -27.3%로 가장 큼

< 2016년 4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6.3월			2016.4월			2016.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4,200	-4.2	23.3	3,812	-10.9	-9.2	14,509	-11.1
1	전자부품	626	18.9	47.6	555	0.7	-11.3	2,029	-3.5
2	철강제품	440	-18.7	14.0	412	-25.8	-6.4	1,618	-24.4
3	정밀화학제품	363	-4.5	11.0	351	-3.7	-3.3	1,328	-1.7
4	석유화학제품	333	-26.5	14.0	326	-32.9	-2.1	1,236	-27.8
5	산업용전자제품	285	15.5	14.9	276	6.1	-3.2	980	9.0
6	기초산업기계	293	6.1	16.7	265	-1.6	-9.6	1,019	-0.9
7	정밀기계	286	-16.4	43.0	208	-17.5	-27.3	854	-25.5
8	수송기계	226	5.3	32.9	196	-1.9	-13.3	773	-7.0
9	플라스틱제품	190	-9.6	9.2	191	-8.5	0.5	729	-10.3
10	산업기계	199	-6.1	12.4	185	-6.2	-7.0	691	-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동 향) '16.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감소로 반전

○ '16.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61백만 달러로 전기비 65.8% 감소

- 전년동기비로도 44.3%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22.8%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도 전기비 44.5%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4		2015		2015.2분기		2015.3분기		2015.4분기		2016.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79 (17.9)	470 (111.7)	61 (-22.8)	161 (-65.8)
전체 외 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774 (24.0)	7,639 (73.7)	667 (-13.8)	4,241 (-44.5)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주)트라이텍스가 안산 반월공단 내에 트라이테크 코리아 공장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
 - (주)트라이텍스는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인 중부지역 나고야 인근에 본사를 두고, 기계 자동화 장치 설계 및 각종 산업·공작용 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2016.5.24. 부천신문)
- 일본 쓰바키모토체인의 한국법인 한국쓰바키모토오토모티브가 총 투자비 148억 원을 들여 부산진해 경제구역에 4,553m² 규모의 제 2공장을 건설, 2016년 10월 완공예정
 - 쓰바키모토체인은 자동차 엔진부품인 타이밍체인 분야에서 일본 국내시장의 약 70%, 전 세계 시장의 약 33%를 점유(2016.4.21. 파이낸셜 뉴스)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대한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대한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6.4월~2016.5월)

□ 국내 기관

- 『최근 일본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사례』 한국금융연구원, 2016년 5월 21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196512| | volumeid=0>
- 『우리는 일본을 닮아 가는가』 LG경제연구원, 2016년 5월16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book/detail.asp?grouping_seq=01040500_16
- 『아베노믹스 3년 일본경제 다시 약해진 성장 동력』 LG경제연구원, 2016년 5월10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405-26_20160511132505.pdf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6년 5월6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6249&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3&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의 금융완화정책 시행 3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6년 4월30일
<http://www.kif.re.kr/kif2/login/login.aspx?returnurl=/kif2/publication/viewer.aspx?controlno=195671>

□ 일본 기관

- 『질 높은 인프라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경제산업성, 2016년 5월24일
<http://www.meti.go.jp/press/2016/05/20160523010/20160523010-2.pdf>
- 『2016년판 모노즈쿠리 백서』 경제산업성, 2016년 5월21일
http://www.meti.go.jp/report/whitepaper/mono/2016/honbun_pdf/index.html
- 『산업 아웃룩 : 주요 산업동향』 미쯔이스미토모은행, 2016년 5월21일
http://www.smbc.co.jp/hojin/report/outlook/pdf/1_00_CRSDOutlook1604.pdf
- 『일본재흥전략 2016』 일본수상관저, 2016년 5월21일
<http://www.kantei.go.jp/jp/singi/kezaisaisei/skkkaigi/dai27/siryou.html>
- 『IoT가 일본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기업활력연구소, 2016년 5월20일
http://www.bpfj.jp/act/download_file/78638529/54510274.pdf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6』 일본 내각부, 2016년 5월20일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16/0518/shiryu_01.pdf
- 『본격화하는 일본의 과학기술외교』 PHP종합연구소, 2016년 4월19일
http://thinktank.php.co.jp/wp-content/uploads/2016/05/policy_v10_n72.pdf
- 『세계의 제조업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일본기계공업연합회, 2016년 5월19일
http://www.jmf.or.jp/content/files/houkokusho/27nendo/27jigyo_08s.pdf
- 『신 산업구조비전 중간정리; 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 경제산업성, 2016년 4월28일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_sangyoukouzou/pdf/008_04_00.pdf
- 『9개 분야의 정책제언』 미즈호 종합연구소, 2016년 4월28일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urgency/report160427.pdf>
- 『일본경제의 중기적인 변혁과 리스크에 관한 조사』 경제산업성, 2016년 4월27일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143.pdf
- 『생산네트워크 : 지리와 기업퍼포먼스』 경제산업연구소, 2016년 4월26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6e055.pdf>
- 『2016년판 중소기업백서: 중소기업의 수익력』 중소기업청, 2016년 4월23일
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8/PDF/h28_pdf_mokujityuu.html

2. 주요 경제 일정

<5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1	· G7 에너지장관회의(기타큐슈)
3	·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프랑크푸르트)
	·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프랑크푸르트)
4	· H독 정상회의(베를린)
6	· H러 정상회의(러시아 소치)
17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도쿄)
	· 구마모토지진 부흥을 위한 '16년도 추경예산안 통과
18	· '16년 1분기 GDP 속보치(전기대비 실질 0.4%, 명목 0.5%, 내각부)
20	· 중의원선거제도 개혁관련법안 가결, 성립(소선거구 '0증 6감' 등)
	·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센다이시)
23	· 4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24	· 신아시아 산학관협력 포럼(서울)
25	· H영 정상회담(미에현)
26	· G7 정상회담(미에현 이세시마)
27	·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총무성)
	· G7 정상회담 아웃리치회의(이세시마) * 아웃리치 초청국: 차드공화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6월 예정 >

일자	주요내용
19	·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시행
23	· 재26회 한일 중소기업 상담회(도쿄)
29	· 일본경제포럼 '한일 간 수평적 분업과 한일협력' (서울)